

미래 콘텐츠·디지털 사이니지 논의

〈음직하고 소리나는 옥외광고〉

K-ICT 전주 센터, '스마트미디어산업 컨퍼런스' 내일 개최 결산·컨퍼런스·아이디어공모전 본선·스마트미디어 체험존

전주시가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와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먹거리 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해 고민한다.

K-ICT 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오는 29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미래 콘텐츠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주제로 한 '2017 스마트미디어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K-ICT 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역특화산업인 미디어 파사드와 디지털사이니지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가 가능한 미디어랩&사이니지스튜디오, 크로

마키스튜디오, 전문교육실,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실, 입주기업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3월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 내 981㎡ 규모로 개소한 이후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K-ICT 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사업성과를 결산하고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전략 논의를 위한 것으로, 지역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신산업창출 및 차별화대를 위한 컨퍼런스와 아이디어공모전 본선 대회, 스마트미디어 체험존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컨퍼런스에는 김형섭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정보기술융합학과 교수와 한이영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트산업협회장, 박선옥 (주)서커스컴퍼니 대표가 각각 스마트사이니지 기술 및 사업방향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패션 △디지털사이니지 해외사례 △4차산업과 AR·VR의 활용 등 4가지 주제에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콘텐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디지털 헤리티지'를 주제로 진행된 K-ICT 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총 상금 610만원을 놓고 이날 치열한 결선대회를 펼친다.

이와 함께, 스마트미디어 체험존에서는 프로젝션 맵핑과 AR·VR, 3D 프린팅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한 시민들이 스마트미디어가 열어갈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문화콘텐츠사업진흥원이 지역의 콘텐츠 기업들과 함께 일반인들도 쉽게 스마트미디어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 /김민근 기자

'평창 성화' 내달 1일 전주 밝힌다

주자 95명 41.4km 구간 달려... 첫 주자 김종연 조각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을 알리는 성화봉송행렬이 12월 1일 전북 전주를 찾는다.

전주시는 다음달 1일 전주에서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렬에서 총 95명의 주자가 41.4km 구간을 이어 달린다고 27일 밝혔다.

성화는 전주역을 출발해 전주종합경기장과 한옥마을, 완산소방서, 이마트 전주점, 경기전까지 전주 일대를 지나게 된다.

첫 주자는 95명이며, 주자 구간(19.2km)과 차량 구간(22.2km)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주자로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가능선수자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김종연 조각장이며, 마지막 주자는 올해 동계체전 쇼트트랙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김희원(서신중) 학생이다. /김민근 기자

특히 성화봉송 행사 중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풍물패 놀이와 함께 전통혼례 신혼행렬을 재현하는 꽃가마 봉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경기전 광장에서는 완산풍물패와 타악연희원 '아리', 설창고와 B-boy의 만남, 꽃발정이 실버무용단, 전자현악 '바이올렛' 공연 등 성화봉송 행렬을 맞이하는 축하행사도 진행된다.

오재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이번 성화봉송 행사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오는 2월 9일 강원도 평창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경유한 2018km를 달린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북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27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통상 특수고용노동자는 대리운전 기사와 골프장 캐디같은 일정한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로자의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딱지붙이기로 지난 20여년을 무관심 상태로 고통 받아 왔다"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도 적용받지 못한 채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오로지 개인이 감당하고 해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결국 반려했다. 특수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 등 투쟁을 벌이는 이유다"고 지적하며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자인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아달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특수노동자회의는 "국회와 정부는 시간 끌기와 사용자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민 기자



27일 전북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전주' 만드는 방안 논의

전주시민원탁회의 개최... 우수정책상 3팀 정책반영 여부 후속 간담회

제6회 전주시민원탁회의가 27일 오전 10시 30시부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전주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원탁회의의 주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 120km의 비밀을 찾아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전주, 아이들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참가자들은 15개의 초로 나누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고, 이번 회의의 의제인 '120km의 비밀'에 대한 정답을 찾아

맞히는 등 수다부터 본격적 정책 아이디어까지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원탁회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주제인 만큼 전업주부 참석자가 많아 행사 시간을 오전 10시 30분으로 조정하고, 아이돌보미를 배치하여 참가자들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별로 아동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정책을 우수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전주시민원탁회의는 9명의 시민기획단(단장 김경현)이 토론주제 선정,

회의진행, 결과물 도출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회의조력자)를 활용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수정책상을 수상한 3팀은 향후 시장실로 초청,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후속 간담회를 갖게 되며, 가장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한 'BEST 시민참여상' 수상자는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어 시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직원교육

전주시는 27일 전주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GIS)사용법 및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공간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지적도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조회, 건축물대장 등을 포함한 부동산·도로·건축물 등의 데이터와 위치정보를 결합해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에 발령받은 신규공무원과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은 업무 담당자 등 25명을 대

상으로 실시 유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간정보 시스템 사용법 △정시영상 활용방법 등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전반에 관한 교육과 △공간정보 보안교육 등이다.

특히, 시는 지적민원과 재산관리, 도시건축, 산림·농지관리 등 각종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전주시 전체공무원의 58%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 중인 만큼 이번 교육이 대민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완산도서관, 29일 '힐링을 통한 인성' 특강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도서관 2층 강의실에서 성태연 강사(전북국학원)를 초청해 '힐링을 통한 인성'을 주제로 한 힐링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고단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시민들의 삶에 즐거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다양한 건강 체조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어서, 한 번의 특강만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산도서관은 지난 9월과 10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구시민운동연합 전북지부 이화정 강사를 초청해 'EM을 이용한 환경 살리기'를 주제로 △EM발효액으로 환경을 살리자 △EM비누로 환경을 살리자 등 2회에 걸쳐 특강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특강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참고, 완산도서관(063-230-1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